

조사선 중시 수행풍토 확산 기대

대한불교조계종(1962~현재) 역대 중정

제1대(1962~66)	효봉 대종사
제2대(1966~67)	창담 대종사
제3대(1967~71)	고암 대종사
제4대(1972~74)	고암 대종사
제5대(1974~79)	서암 대종사
제6대(1981~90)	성철 대종사
제7대(1991~93)	성철 대종사
제8대(1994)	서암 대종사
제9대(1994~98)	철하 대종사
제10대(1999~2001)	해인 대종사
제11대(2002~)	법전 대종사

조계종은 3월26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을 새 중정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안정을 바탕으로 종단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전스님은 추대회의 후 곧바로 해인사로 향해, 중정으로서의 '일성(一聲)'을 뒤로 미웠으나, 4월 2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중정교시를 내려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법전스님이 온화한 성품과 깊은 수행력으로 후학들을 이끌어와, 최근 조계종의 안정을 기조로 한 발전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스님이 조계종의 종풍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고 50 하안거를 성만하는 등 대중들에게 몸소 보여준 수행력은 종단의 승풍진작, 수행풍토 일신, 화합승가 구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원로회의 수석부위원장 종산스님은 "수행에 밝은 법전스님이 중정에 오면 만큼 수행위주의 종단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정추대회의는 한차례 연기되고, 추대위원 간 의견 상충이 있어 투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마지막에 법전스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추대회의를 거치면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조계종 내에 깊숙이 스며든 문중간 파벌 의식 해소. 이에 대해 종단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중정 추대에는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5명이나 중정을 배출한 해인사 독주에 대한 견제가 나오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갔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로의원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사안

진화 한 문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조계종 11대 중정 법전 스님 추대 인제리



◁법전 스님이 11대 중정으로 추대된 다음날인 3월 27일 해인사대중스님들의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법좌에 앉은 법전 스님에게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이 꽃다발을 봉정하고 있는 모습.

성품 온화... 안정 기조속 종단 발전 전망 일부선 "문중간 파벌해소 특단대책을"

들이 본질을 벗어나 조계종 양대 산맥인 법어·덕승 문중의 분사 간 세력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이 큰일이다"며 "조계종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중이 약해(弱) 소외된 원로스님들과 수행납자들에게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축하메시지 잇달아 ●

3월 26일 법전스님이 중정으로 추대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 정당 등에서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발전에 공을 세우신 법전스님의 중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는 내용의 축하메시지가 답지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조직 정비·교육 체계 강화해야

의식조사서 나타난 청년불교 활성화 방안

'청년불교 활성화 해답은 무엇인가?' 조계종 포교원이 3월26일 발표한 '2001년 청년불자 종교의식 조사'에서 청년회가 당면한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회원참여 저조,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 미비이다. 여기에다 청년회의 회원 구성이 노령화되고, 자체적인 수행이 미약하며, 5년을 전후로 해 회원의 이탈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전반적 신도조직의 재정비와 네트워크 형성 △교육체계화 및 제도화 △프로그램 개발 △사찰에 기반한 청년회로 전환 △청년불자 인식전환 등 5가지로 집약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불청 조직이 96년 284개 조직에서 2001년 124개로 급격히 준 것은 어린이 청소년, 대불청 조직의 침체에 기인한다. 이같은 현상은 전반적 신도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청소년 대학생 회원이 단절적,으로 대불청으로 흡수되지 않는 조직적 연

계가 단절돼 있다는 현상을 나타낸다. 중·고등 학생회와 군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조직 간의 인적(人的) 이전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전국 신도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단차원에서 연계관계를 설정, 인적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그 간의 교계의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중·고학생회·군불자와 연계조직 구축

소모임 활성화·수행 프로그램 개발

청년 불자들이 입회후 5년을 전후하여 탈퇴해버리는 악순환으로 인해 노령화 되는 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불자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1년 차 경우 기본교육 필수형, 2년 차 전문교육, 4~7년 차 참선 독경 지도자교육, 8년 차 재 교육 등 단계별 연차별 프로그램 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김 대통령 축하전문

법전 큰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중정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의 대승(大僧)으로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신 탁월한 지도력과 종단의 두터운 신망을 통해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화합과 조국발전에 더한층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큰스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6. 3. 27
대통령 김대중

조계종 중정은

종통승계·임기 5년
1회 한해 중임 가능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며, 중정은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고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중정은 승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의 비구(比丘) 법계(法階) 대종사(大宗師) 가운데 원로의원(원재22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이 모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중정은 전제대화상 위촉권, 포상과 징계의 사면복권권, 종단 비상사 원로회의 재적 3분의2 제청에 의해 중앙종회 해산 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 회의 소집"

새 원로의장에 추대된 도원 스님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이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며 "앞으로 종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일일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법 개정 등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시기에 원로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라는 스님은 "종단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총무원장과 상의하여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김중필 자

종단발전 일익 담당할 터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3월26일 제 18대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장에 추대된 도원스님은 "원로들의 뜻을 받들어 원로회의가 종단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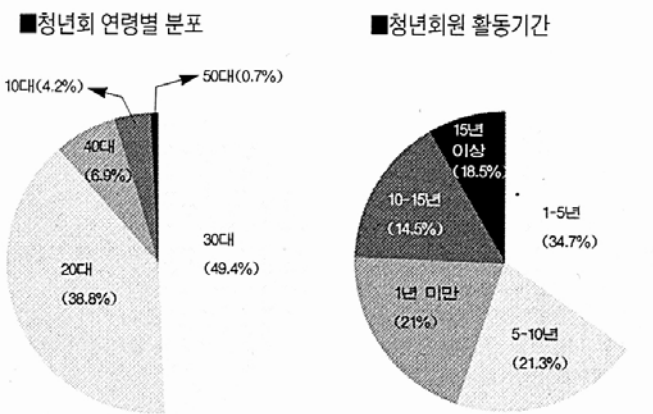
민원 총재는 26·27일 "도원 큰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큰 스님의 원력으로 귀 종단과 불교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축전을 보내왔다.

도원 스님은

도원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하여, 42년 파계사에서 종려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탄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50년 법아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49년부터 30하안거를 성만했다. 52년 월정사에서 중덕법계, 65년 대덕법계를 푼수했다. 68년 월정사 주지, 72년 파계사 주지, 81년 (학)능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85년 제8대 중앙종회의원, 90년 (학)동국학원 이사이다. 99년부터 원로회의 차석부위원장을 맡아왔다.



부위원장 원명 스님은 원명스님은 3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하여, 43년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을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중앙종회의원, 79년 송광사 주지, 81년 대구사원주지인 합회 초대회장, 88년 불교대학교육원 이사장, 89년 불교대학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2002월드컵 성공을 기원합니다

2002월드컵 성공기원 대법회

일 시: 불기2546(2002)년 4월 9일(화) 오후 2시
장 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주 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후 원: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2002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